



영화제 시작 위해 레드카펫 지나는 위원장들



정준호(왼쪽)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과 우범기(가운데) 전주시장, 민성욱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으며 장내로 들어가고 있다.

'26돌' 전주국제영화제, 막 올랐다

올해 26돌을 맞은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 정준호)가 3년 연속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이번 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는 배우 김신록과 서현우가 맡았다.

두 배우는 깊이 있는 연기력과 독립 영화에 대한 애정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왔으며, 전주국제영화제와도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본격적인 개막식 이전부터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됐다.

가장 먼저 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과 우범기 전주시장 및 조직위원장이 모습을 보인 뒤 여러 영화인들이 레드카펫을 밟았다.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선정된 가수 겸 배우 이정현, 무장벽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 '가치봄'의 엠버서더로 선정된 배우 김보람 외에도 송지호, 안소희, 이주영, 진선규 등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와 영화인들이 개막식을 찾아온 관

9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 전 세계 57개국 224편 상영

민주주의의 다시 돌아볼 '다시, 민주주의로' 섹션 등 마련

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레드카펫 행사가 끝난 뒤 민성욱, 정준호 집행위원장의 환영사로 막을 올린 개막식은 특별 공로상 시상, 우범기 조직위원장의 개막선언, 개막공연 등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번 특별 공로상은 지난해 12월에 발매한 전주 출신 한국영화의 거장 송길한 시나리오 작가가 수상했다. 대리수상을 위해 유가족이 참석했다.

이후 개막작 공개로 개막식은 마무리됐다.

이번 영화제 개막작은 <콘티넨탈 25>이다. 이 작품은 투마니아를 대표하는 감독 라두 주데의 신작으로, 모든 장면이 스마트폰으로 촬영됐다.

라두 주데 감독은 유럽 현대 영화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 앞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콘티넨탈 25>의 주연, 오르술라 역을 맡은 배우 에스테르 토폴가 "투마니아에서는 돈만 있으면 누군가의 일조권을 침해해버리는 일도 많이 벌어진다. 매우 폭력적인 상황"이라며 "오르술라는 똑똑한 인물이지만, 그것이 실제 부패·권력 남용·탐욕 등 문제를 바꾸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촬영 이후 선거가 있었는데, 후보자 중 '헝가리 사람은 투마니아에서 소수이고 물과 공기를 가진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었다"며 "투마니아뿐 아니라 유럽 전반에서 극우가 떠오르는 현실을 심각하게 바

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9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며, 전 세계 57개국 224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이번 영화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기에 봉착했다고 평가받는 국내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다시, 민주주의로' 섹션, 한국영화의 스타로 꼽히는 배창호 감독 특별전, 영화 산업의 돌파구를 찾아보는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 특별전 등의 전 분야를 막론하는 영화들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전주 곳곳에 숨겨진 장소에서 특별한 관람을 즐길 수 있는 '골목상영', 단순 전지를 넘어 디자인의 비평으로까지 분야를 넓혀가는 '100 Films 100 Posters', 배우·음악·풍경과 영화가 접목된 '전주씨네투어' 프로그램 등 스크린 밖에서도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다. /김재훈 기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도, 친환경 축산업 장려 위해... 맞춤형 지원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주민 신뢰를 받는 친환경 축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약취는 저감하고, 가축 질병은 예방하는 등 축산물 신뢰도와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겠다는 방침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사 내·외부 관리, 가축분뇨 적정처리, 가축 사육밀도 준수 등 필수요건*을 충족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정받은 농장을 말한다. 대상 축종은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 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위해 △지정농가 대상 지원사업 확대(지정농가 한정사업 운영, 지원단가 상향,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신규 희망 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팜플릿 제작 및 생산자 단체·계열업체 방문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은 지정 농가에만 한정된다.

또한 '산란계 칼슘첨가제'와 '복염

스트레스 완화제'는 일반 농가보다 높은 단가로 지원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 같은 우대 조치는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지정 희망 농가가 신청 시 시군을 통해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 방문해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탈락을 줄이고, 농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정 절차는 해당 시군에 연중 신청을 접수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의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농식품부가 최종 지정한다. 아울러 팜플릿 제작, 생산자 단체 및 계열업체 방문 홍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도 병행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무엇보다도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청결 관리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 농가와 생산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올 과학기술 유공인들을 찾습니다

전북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수상 후보자 공개모집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 심사 등 거쳐 최대 3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수상 후보자를 1일부터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은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도내 기업 성장과 지역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선정해 상패와 메달을 수여하는 상이다. 매년 '과학축전의 날'과 연계해 시상식을 진행하며, 우수 연구자의 업적을 널리 알리

고 도민과 함께 과학문화 확산의 계기로 삼고 있다.

후보자는 시장·군수, 도내 대학·연구기관,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기관 등이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와 공적조서,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해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산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와 10인 이내의 본심사위원회가 단계별로 진행한다. 연구성과의 우수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대 3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기념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2025년 5.10(토)~11(일)
10:00~21:00

장소 · 정읍천 어린이축구장 일원

주최 정읍시 주관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후원 정읍농협 순정축협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축하공연



박지현



알리



황윤성



하림

억압에서
피어난 불꽃